

사회적 행동과 성격심리학 과제

성명: 박정빈

학번: 20192062

1. 성인애착면접 자기 보고

본인은 자기 보고형 성인애착면접 질문지에 답변하며, 이를 통해 자신의 어린 시절 애착 경험을 돌아보고 분석하였습니다.

2. 성격검사 해석

LMT 해석



1. 강

- **그림:** 물의 면적이 종이의 50%가 넘게 그림.
- **해석:** 물의 면적이 넓은 것으로 보아 무의식적으로 신경증이 있고, 과거 상처의 억압이나 갈등이 있습니다.

2. 산

- **그림:** 산을 매우 크고 멀리 있는 전경처럼 그리고 싶었으나 지면의 한계로 상단에 흔적처럼 남겨놓음. 강을 산속의 물로 생각하고 그림.
- **해석:** 의식, 무의식, 과거, 미래 현실을 구분하지 않고 문제가 많다고 인식하며, 특히 의식 단계에서 많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.

3. 논/밭

- **그림:** 산 중턱에 넓은 논이 있으며, 다 익은 벼로 가득 채움.
- **해석:** 현실 도피 욕구, 일의 중요성, 수확/성취감에 해당됩니다. 제가 그림을 그

그릴 때, 공간에 곡식이 많으면 마음이 편해지니까 곡식을 많이 그렸는데, 해석과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성취를 얻어서 마음이 편해지고 싶다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.

4. 길

- **그림:** 논 사이에 시골에 있는 콘크리트 길을 바둑판 모양으로 그림.
- **해석:** 내면 갈등이 많음을 나타냅니다.

5. 집, 나무, 사람

- **그림:** 집과 나무가 매우 작으며, 사람이 강에서 떠다니는 모습. 얼굴을 그리지 않고 주먹 쥔 손을 그림.
- **해석:** 위축감, 낮은 심리적 에너지와 삶의 의지, 세상에 대한 억제적, 회피적, 억압된 분노나 적대적 태도를 나타냅니다. 때로 공격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.

6. 꽃

- **그림:** 꺾이고 축 처진 꽃을 사람의 손에 들린 모습.
- **해석:** 감정이 결여되고 정서적으로 메말랐습니다.

7. 동물

- **그림:** 사람과 같이 해엄치는 늑대를 여럿 그림.
- **해석:** 해석이 어려움.

8. 돌

- **그림:** 화면 전체에 꽉 차게 그림.
- **해석:** 큰 역경이 나를 막고 있음을 시사합니다.

SCR 해석

빈칸을 채우는게 상당히 고역이었습니다. 제가 행복한 때,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없어서 무엇을 적어야할지 몰라서 힘들었습니다. SCR해석을 보자면, 제 힘들었던 과거와 그것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속상합니다. 이것들을 직면하여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, 그것도 못하고 있는 나약한 제자신이 부끄럽습니다.

TAT 해석

1. C1

- **특징:** 과제가 주어졌을 때 하기 싫고 귀찮아하지만 일단 시키는 것은 함. 과제를 할 때 자신의 주관이나 소망과는 무관하며, 주변 피드백을 기대하지 않는 척 하지만 사실 칭찬을 기대함.
- **해석:** 스스로 주관 없이 타인의 피드백에 기대는 성향이 보이며, 현실 속에서 내

면의 억제된 욕구가 드러남.

2. 3BM

- **특징:** 좌절하고 있으나 좌절한다고 상황이 바뀌지 않음을 알고 있으며, 다음에 할 일을 생각 중.
- **해석:** 무력감 속에서도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려는 현실 수용적 태도를 나타냄.

3. 6BM

- **특징:** 뒤에 있는 여성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았기에 해석 불가. 남자는 자신이 원해서가 아닌 곳(장례식장)에서 있어야 하며, 집에 가고 싶어함.
- **해석:** 타인과의 관계에서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회피적 성향이 드러남.

4. 7GF

- **특징:** 소녀는. 뒤에 있는 여인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. 창밖 정원에 나가 뛰어놀고 싶습니다
- **해석:** 자유롭고 충동적인 욕구가 억제된 상태를 반영함.

3. 종합적 해석

모든 지표가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나올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.

글을 쓰면서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 같습니다. 이것도 하나의 방어기제인 것 같습니다. 사실 하나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. 애착유형도 불안 + 회피형으로 나오고, 제 스스로 아픈 과거를 되돌아보며 분석하고 글로 작성해야하는 경험이 참 힘들었습니다.

저는 저 스스로를 너무 몰아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현재 제가 겪고 있는 상황과 과제들에 너무 힘들어하고, 과도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잔뜩 하지만 당근을 주지는 않습니다. 상처입은 마음을 지지해줄 정신적 지주 또한 없습니다. 총체적 난국입니다. 하지만 멈춰 설 수가 없습니다.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제가 겪은 아픈 과거는 저만 겪는 일도 아니고, 저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많습니다.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인생과제들은 20대 청년이라면 모두가 겪고 고민하고 힘들어할 과제들입니다. 너무 힘들어할 것 없습니다. 천천히 하다 보면 다 풀릴 것이라 기대합니다.